

스탕달 신드롬 (Stendhal Syndrome)

스탕달 신드롬(Stendhal Syndrome)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뛰어난 예술품을 감상한 뒤 받은 흥분에서 생기는 현상을 말하며 <적과 흑>의 작가 스탕달에게서 유래되었다. 1871년 스탕달은 산타 크로체 교회에 진열된 미술 작품을 관람한 뒤 전시관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 심장이 뛰고 무릎에 힘이 빠지는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이를 치료하는데 1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전세계에서 고전 미술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피렌체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집단적으로 이와 유사한 증상에 시달렸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자 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최초로 경험한 스탕달의 이름에서 따와 '스탕달 신드롬' 이라고 명명했으며 스탕달 신드롬이 환자들에게 의기소침, 피해망상, 자아상실, 정서혼란 등의 증상을 겪게 한다고 발표했다. "스탕달 신드롬"은 이탈리아의 공포 영화의 거장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스릴러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다. 영화 스탕달 신드롬은 예술작품에서 받은 충격적 영감을 가공할 만한 범죄로 연결시키는 내용이다.

쇼비니즘

광신적 애국주의.

프랑스의 연출가 코냐르의 속요 '삼색모표'에서 나폴레옹을 신과 같이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병사의 이름 니콜라 쇼뱅에서 유래했다. 조국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국제 정의도 고려치 않는 비합리적인 배타주의를 표방한다. 남성 쇼비니즘(Male Chauvinism)은 맹목적인 남성우월주의를 말한다. 호전적 국가주의를 뜻하는 징고이즘(jingoism)도 같은 말이다.

슬로비족

'천천히 그러나 더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 (Slower But Better Working People)'의 약칭 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 1990년 오스트리아에서 창설된 '시간늦추기회'에서 유래하였다.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생활의 속도를 늦춰 느긋하게 살자고 주장하며 물질보다 마음, 출세보다 자녀를 중시한다. 80년대 미국의 신중부유층으로 각광받던 여피(Yuppie)족이 젊고(Young) 도시 거주자(Urban)이며 연소득 5만달러 이상의 전문직(Professional) 종사자들이었다면 이를 거부하는 슬로비족은 일확천금에 집착하지 않고 성실하고 안정적인 생활에 삶의 가치를 더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트리클다운 효과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는 '적하효과'라고도 하는데,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시는 것처럼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등 낙후부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말한다. 정부가 투자증대로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결국은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끼쳐 전체적으로 경제 수준이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1993년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책은 폐지되었으나 '트리클 다운 효과'는 경제용어로 정착하였다.